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에 광주를 찾은 유료 관광지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36% 증가하고, 전남도 역시 신안 증도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나는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관광명소와 축제, 해수욕장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성과와 과제

방문객 늘고, 관광행정 패러다임 확 바꿨다

▲광주=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를 찾은 방문객 수는 10월말 현재 1천475만명으로, 2007년 1천290만명에 비해 14.14%가 증가했다. 특히 유료 관광지 방문객은 212만명으로 2007년 155만명에 비해 무려 36.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광주·전남방문의 해’ 성과보고회에서는 광주·전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광역관광을 공동 추진,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가 개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단일 행정구역 체제에서 광역관광행정 추진체제로 관광 행정의 패러다임(틀)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슬로건을 ‘맛을 따라 맛을 찾아!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로 정하고 홍보에 주력해 ‘광주·전남은 맛과 맛의 고향’이라는 관광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해구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장은 “광주시가 호남권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숙박, 음식, 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호남권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올해 신안 증도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것을 비롯해 주요 관광명소와 축제, 해수욕장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봄꽃상품 등 방문의 해 특별 기획상품 60종과 영산강 화포꽃배·토요경매·토요공연 등 문화관광상품, 크루즈 및 슬로시티 관광상품 등 남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운영해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는 또 남도투어렐리(3~11월)와 한·중 청소년 캠프(7월), 앙드레김 패션쇼(10월), 명랑대접축제(10월) 등 대형 이벤트 상품도 선보여 국내·외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전남지역을 찾은 방문객을 가늠할 수 있는 호남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5천223만5천549대의 차량이 통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929만3천80대에 비해 5.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주요 도서 여객선 수송실적 역시 지난 10월 말까지 78만5천373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만4천412명에 비해 무려 18.21%나 증가했다.

도서별로는 완도 청산도에 21만9천949명이 찾아 18.21%가 증가했고, 여수 거문도 21만5천999명으로 5.3%, 신안 홍도 16만7천589명으로 21.51%, 신안 증도 15만1천683명으로 40.28%, 신안 흑산도 7만3천668명으로 9.46%, 신안 가거도 1만1천106명으로 42.62%의 방문객이 각각 늘었다.

전남에서 개최되는 30개 주요 축제 방문객 수는 10월 현재까지 1천489만4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천160만4천명으로 비해 28.3%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0만명 이상 방문객을 기록한 축제는 함평 나비엑스포(126만명)와 심청제·담양 대나무축제(각각 120만명), 구례 산수유축제(110만명),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107만명) 등 5개에 달했다.

피서철 해수욕장 방문객은 총 62곳에 550만9천명으로 지난해의 502만1천명보다 10%가 증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계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9월 현재까지 6천856만6천67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천226만6천253명)에 비해 10.1%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14만6천598명으로 지난해보다 24.6%가 증가했다.

명칭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올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관광시장을 적극 공략해 중국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또 한옥민박 등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관광객 수용여건을 적극 개선, 전남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Only One(오리 원) 상품을 개발·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가 2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문화·관광분야 전문가와 음식·숙박·운송업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축제·해수욕장 등 관광객 대거 몰려
남도 이미지 부각·각종 이벤트 호평
숙박·음식 등 관광인프라 확충해야

‘남도투어렐리’ 대박 났어요

전국 4,700여팀 참가... 26억원 소득창출 효과

전남도가 올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대표 관광상품으로 내놓은 ‘남도투어렐리’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4천700여팀이 참가, 26억원의 소득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9개월동안 봄·여름·가을 계절별로 실시한 ‘남도투어렐리’에 전국에서 4천798팀이 참여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6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에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지역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도투어렐리는 광주전남의 유명관광명소 170개소를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www.tourrally.co.kr)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기아자동차 모닝, 보성다비치론도 20년 평생회원권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는 남도의 대표적 관광이벤트다.

지난해까지는 하계휴가철에만 10일간 실시했으나

올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연중 확대 실시하면서 인터넷·수도권 무가지 광고,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이벤트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에서 4천798팀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수도권과 영남권 참여자들이 전체 참여자의 70%를 차지했으며, 30~40대 가족단위 참여자가 주를 이뤘다. 또 대표적 연안습지인 순천만과 사시사철 초록의 물결로 편안함을 주는 보성다원, 2008년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메타세쿼이아 길 등 운치 있으면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인기를 모았다.

여름그늘에 가족과 함께 170경 전체를 완주해 모닝승용차를 받은 이도경(경기 고양)씨 가족은 가을그늘에도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 추첨을 통해 보성다비치론도회원권을 받는 큰 행운을 얻었다.

이씨는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면 보이니”라는 말처럼 남도에 중독돼 고향처럼 드나들었더니 대박이 난 것 같다”며 “투어렐리는 참여하면 할수록 계속 남도를 찾아가게 하는 마법같은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개강 1월 2일** 기본과정 (1학기 2학기)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특수강사님 명단이 아닙니다.]

일반생물 김영민 연세대학교	일반화학 황재현 연세대학교	유기화학 비움정 연세대학교
일반물리 박종기 연세대학교	영어수업 장영준 연세대학교	시험 TIPS 서정환 연세대학교

특수혜택

- 특수혜택 실시할 때비 대학원 지원에 유리하다
- 특수혜택 제공중인 학년
- 특수혜택 제공대상생원
- 특수혜택 대학 원입학비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지원할 지원원 학원원

- 지원원 |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 특수혜택 |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 특수혜택 |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 특수혜택 |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MDPass 醫학원

광주 263-5453 북구정 맞은편 | 서울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서울고시학원 514-4560